

제 4장

불교 경제학¹

'올바른 생활'(Right Livelihood, 正命)은 불교의 팔정도(Noble Eightfold Path, 八正道)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므로 불교 경제학 같은 것이 존재하는 게 틀림없다.

불교 국가에서 사람들은 전통을 충실히 지키려 한다. 그래서 버마 [Burma, 1989년에 미얀마 Myanmar로 국호가 바뀌었지만, 글이 씌어진 시대적 상황을 감안해서 그대로 옮겼다] 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새로운 버마는 종교적 가치와 경제적 진보 사이에 어떠한 갈등도 알지 못한다. 정신 건강과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대립되는 게 아니라 본래 공존하는 것이다."² 또는 "우리의 전통 속에 있는 종교적·정신적 가치와 근대 기술의 편익을 잘 조화시킬 수 있다"³거나 "우리 버마인에게 소망과 행동을 신앙에 합치시키는 일은 신성한 의무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들은 언제나 근대 경제학에 따라 자국의 경제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이른바 선진국의 근대 경제학자들을 초빙하여 추진할 정책을 입안하고 5개년 계획_그 어떠한 이름으로 불리든_기간에_같은 거대한 개발 청사진을 수립하는 데 자문을 구하고 있다. 근대 물질주의 생활방식이 근대 경제학을 낳은 것처럼, 불교적 생활방식이 불교 경제학을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듯 보인다.

¹ 이 장은 원래 *Asia: A Handbook*(edited by Guy Wint, published by Anthony Blond Ltd., London, 1966)에 실렸던 글이다.

² *The New Burma*(Economic and Social Board, Government of the Union of Burma, 1954)

³ *Ibid*

⁴ *Ibid*

많은 전문가들처럼 경제학자들도 대체로 그 어떠한 전제도 없는 절대불변의 진리에 관한 과학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형이상학적 맹목성으로부터 고통을 겪는다. 어떤 사람은 경제법칙이 중력법칙처럼 '형이상학'이나 '가치'에서 자유롭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여기서 필자는 방법론 논증에 개입할 생각이 없다. 그 대신 기본적인 문제를 고려할 경우, 그것이 근대 경제학자와 불교 경제학자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자.

부의 근본 원천이 인간의 노동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근대 경제학자들은 '노동(labor or work)을 필요악 정도로 여기도록 교육받았다.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어느 경우에도 기계화 같은 방식으로 줄일 수 있는 한 최소로 줄여야 하는 비용 항목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비효용'이다. 노동은 여가와 편안함을 희생하는 것이며, 임금은 이 희생에 대한 보상이다. 따라서 고용주에게는 고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피고용인에게는 노동하지 않고 소득을 올리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러한 태도의 결과는 이론과 실천 두 측면에서 당연히 너무나도 극단적이다. 노동에 관한 이상향이 그것을 없애는 것이라면 '노동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모두에게 좋은 것이다. 기계화를 제외하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분업'인데, 이것의 고전적인 사례는 스미스가 『국부론』(Wealth of Nations)에서 칭찬했던 핀 제조공장이다.⁵ 여기서 분업은 인류가 아주 먼 옛날부터 이용해 온 통상적인 전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생산 공정을 분할하여 완성품을 아주 빠르게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개인은 누구나 무의미할 정도로 적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단순한(unskilled)근육운동을 해야 한다.

불교 관점에서 보면, 노동의 역할에는 적어도 세 가지가 있다. 인간에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⁵ *Wealth of Nations* by Adam Smith

항상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통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자기중심성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영향은 무한하다. 노동을 노동자에게 의미 없거나 지루한, 또는 창피하거나 신경 쓰이는 것이 되도록 조직한다면, 이는 범죄 행위나 진배없다. 그것은 사람보다 재화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이고, 연민 없는 악행이며, 이 속세의 존재의 가장 원시적인 속성인 영혼 파괴에 해당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노동 대신 여가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 존재의 기본적인 진리 가운데 한 가지를 완전히 오해하는 것인바, 그것은 바로 노동과 여가가 삶이라는 하나의 과정의 보완적인 부분이며, 노동의 기쁨과 여가의 축복을 파괴하지 않고는 양자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불교 관점에 따르면, 기계화에는 분명하게 구분되는 두 유형이 있다. 인간의 숙련(skill)과 능력을 높이는 기계화와 인간의 일을 기계라는 노예에게 건네주고 인간을 그 노예에 대한 봉사자로 만들어 버리는 기계화가 그것이다. 양자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이에 대해 근대의 서양과 고대의 동양에 모두 능통한 쿠마라스와미(Ananda K. Coomaraswamy)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직인(craftsman)은 기회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기계와 도구의 섬세한 차이를 보여줄 수 있다. 융단을 짜는 틀(carpet loom)은 직인이 손가락을 이용해 날실 사이로 실이 짜여지도록 고안된 도구이지만, 역직기(power loom)는 기계이다. 이 기계는 노동에서 본질적으로 인간의 몫을 대신한다는 점에서 문화의 파괴자이다."⁶ 따라서 불교 경제학은 근대의 물질주의 경제학과 당연히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불교가 문명의 본질을 욕망의 증식이 아니라 인간성의 순화에서 찾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인간성은 주로 인간의 노동을 통해 형성된다. 아울러

⁶ *Art and Swadeshi* by Ananda K. Coomaraswamy(Canesh & Co., Madras)

노동은, 인간에게 존엄과 자유가 보장된 조건에서 적절히 수행될 경우, 그것을 행하는 사람과 그가 만든 생산물 모두에게 축복이다. 이에 대해 인도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쿠마라파 (J. C. Kumarappa)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노동의 본질이 적절하게 평가되고 적용된다면, 그것이 고상한 능력 (higher faculties)과 맺는 관계는 음식이 신체와 맺는 관계와 같아질 것이다. 일은 고상한 인간 (the higher man)을 길러내고, 이런 인간에게 활력을 주며, 그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준다. 노동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적절한 방향에 따라 행사되도록 유도하며, 인간의 내부에 존재하는 동물성을 길들여 좋은 길로 인도한다. 노동은 인간이 가치관을 보여주고 인격을 향상시키는 데 훌륭한 배경을 제공한다."⁷

인간은 노동할 기회가 없으면 절망에 빠지는데, 이는 단순히 수입이 없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훈육된 (disciplined) 노동을 통해 성장하고 활력을 얻는 측면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근대 경제학자는 완전 고용이 '이로운' 것인가, 노동이동을 활발히 하고 임금을 안정시키기 위해 경제를 완전 고용에 약간 못 미치는 상태에서 운용하는 게 좀더 '경제적인' 것인가에 관한 아주 정교한 계산 작업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이 학자에게 성공의 근본적인 기준은 단순히 일정한 기간에 생산되는 재화의 총량이다. 갈브레이스 교수는 『풍요로운 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재화의 한계중요도 (marginal urgency)가 낮다면, 노동력 가운데 마지막 한 명이나 마지막 백만 명을 고용하는 중요도 역시 그러하다."⁸ 계속해서 그는 "만일 (...) 우리가 안정을 위해

⁷ *Economy of Permanence* by J.C. Kumarappa (Sarva-Seva Sangh Publication, Rajghat, Kashi, 4th edn., 1958)

⁸ *The Affluent Society* by John Kenneth Galbraith (Penguin Books Ltd., 1962)

어느 정도의 실업을 받아들일 수 있다 _부연하자면 이는 분명히 보수주의를 가정한 것이다 _면, 실업자들에게 기존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재화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불교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견해는 재화를 사람보다, 소비를 창조적인 활동보다 중시함으로써 진리를 뒤집는 것이다. 이것은 강조점을 노동자에서 노동 생산물로, 즉 인간에서 인간 이하의 것으로 옮겨가는 것이며, 악의 힘에 굴복하는 것이다. 불교도라면 경제계획의 출발점은 완전 고용을 위한 구상일 것이며, 이것의 기본 목표는 '외부' 일 자리를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용하는 것이지, 고용 극대화나 생산 극대화가 아닐 것이다. 부인들은 대체로 '외부' 일 자리를 찾지 않으므로 이들을 회사나 공장에서 대규모로 고용하는 것은 심각한 경제적 실패를 보여주는 징표로 여겨질 것이다. 특히 불교 경제학자에게는 어린 자녀가 있는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지 않고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숙련 노동자를 군인으로 이용하는 것이 근대 경제학자에게 [비경제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이다.

물질주의자는 주로 물질에 관심을 보이지만, 불교도는 주로 해탈 (liberation)에 관심을 보인다. 그렇지만 불교는 '중도' (The Middle Way)이므로 결코 물질적인 복지 (well-being)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다. 해탈을 방해하는 것은 부 자체가 아니라 부에 대한 집착이며, 즐거움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탐하는 마음이다. 따라서 불교 경제학의 핵심은 소박함 (simplicity)과 비폭력이다.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불교도의 생활 방식은 경이롭다. 왜냐하면 놀랄 만큼 적은 수단으로 아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산출할 정도로 대단히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근대 경제학자가 이것을 이해하기는 매우 힘들다. 그는 항상 많이 소비하는 사람은 적게 소비하는 사람보다 '행복하다'는 전제 아래 연간 소비량으로

'생활 수준'을 측정하는 데 익숙하다. 허나 불교 경제학자에게 이런 접근은 너무도 비합리적인 것이다. 소비는 단순히 인간의 복지에 대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최소한의 소비로 최대한의 복지를 확보하는 데서 목적을 찾는다. 그러므로 옷을 입는 목적이 어느 정도 쾌적한 온도와 매력적인 외모를 확보하는 데 있다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은 옷의 마모를 최소화하면서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능한 디자인을 활용하는 데 있다. 이러한 노력이 줄어들수록 예술적인 창조를 위한 시간과 힘이 늘어난다. 이를테면 근대 서구에서 주로 하는 복잡한 재봉질보다, 천을 자르지 않고 맵시 있게 주름 잡아 몸에 걸치면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 천이 빨리 마모되도록 만드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것이며, 추하거나 초라해 보이도록 만드는 것은 너무도 야만스러운 것이다. 방금 의복에 대해 말한 내용은 그 밖의 모든 필수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재화를 소유하고 소비하는 일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며, 불교 경제학은 최소한의 수단으로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이와 달리 근대 경제학은 소비를 경제 활동의 유일한 목적으로 여기며 토지,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들을 그 수단으로 취급한다. 간단히 말해서, 불교 경제학이 적절한 소비 패턴 (the optimal pattern of consumption)으로 인간의 만족을 극대화하려는 데 반해, 근대 경제학은 최적의 생산 패턴 (the optimal pattern of productive effort)으로 소비를 극대화하려 한다. 적절한 소비 패턴을 추구하는 생활 방식은 최대의 소비를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노력으로 유지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버마에서는 미국에 비해 노동을 절약하는 기계가 대단히 적게 사용되고 있지만 생활의 압박감이나 긴장감은 아주 낮은데, 이는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소박함과 비폭력은 분명히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 적절한 소비 패턴은 비교적 적은 소비로 높은 수준의 만족감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압박감이나

긴장감 없이 생활하면서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라"는 불교의 첫 번째 계율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준다. 어디에서나 물질적인 자원은 한계가 있으므로, 적은 자원으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많은 자원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서로 다투는 가능성이 적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도로 자급자족적인 지역공동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국제무역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대규모 폭력에 휘말릴 가능성이 적다.

불교 경제학에 따르면, 지역의 자원을 이용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을 생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경제생활이다. 반면에 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에 의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먼 미지의 사람들에게 수출하기 위해 생산하는 것은 아주 비경제적인 것이며, 이것은 오직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것도 소규모인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을 뿐이다. 근대 경제학자들에게 집과 직장 사이를 오가는 데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불행한 일이지 높은 생활 수준을 의미하는 게 아니듯이, 불교 경제학자들에게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성공이라기보다 실패를 의미한다. 그런데도 전자는 국가의 운송체계에서 국민 일인당 운송량(마일당 톤수로 표시되는)의 증가를 보여주는 통계를 경제적 진보의 증거로 해석하지만, 후자 불교 경제학자 는 이 통계치를 소비 패턴이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근대 경제학과 불교 경제학은 사회적 권리를 이용하는 데서도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프랑스의 저명한 정치철학자인 주브넬(Bertrand de Jouvenel)은 '서양인'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데, 이는 근대 경제학자에 대한 타당한 설명으로도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그 [서양인]는 인간의 노력만을 지출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광물질을 낭비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생명체를 파괴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듯 보인다. 그는 인간의 생명이 수많은 다양한 형태의 생명체로 구성된 생태계의 일부라는 점을 좀처럼 깨닫지 못하는 듯 보인다. 인간을 모든 비인간 생명체와 단절시키는 도시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므로, 생태계에 속한다는 느낌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물이나 나무처럼 인간이 궁극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들을 거칠고 경솔하게 취급하는 태도가 나타난다.⁹

이와 달리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모든 감정 있는 것들(all sentient beings)만이 아니라 심지어 나무에 대해서까지 경건하면서도 비폭력적인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불교도들은 몇 년에 한번씩 나무를 심고 그것이 튼실하게 뿌리내릴 때까지 돌보아줄 의무가 있다. 그리고 불교 경제학자들은 누구나 이 의무를 지킨다면 외국의 원조 없이도 진정한 경제 발전이, 그것도 높은 수준의 경제 발전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증명할 수 있다. 분명히 말해서 (수많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경제 발전이 부진한 이유는 대부분 나무를 부끄러울 정도로 소홀히 다루었기 때문이다.

근대 경제학은 재생될 수 있는 물질과 재생될 수 없는 물질을 구분하지 않는데, 이는 그것의 방법론이 모든 것을 동질화시켜 화폐 가격으로 수량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근대 경제학자는 다양한 대체연료들, 이를테면 석탄, 원유, 나무, 수력 따위를 고려하면서 이것들 사이에서 단위당 상대 비용의 차이만을 유일하게 인정할 뿐이다. 여기서는 가장 값싼 것이 필연적으로 선택되며, 그렇지 않으면 비합리적이거나 '비경제적인' 것이 된다. 불교 관점에서

⁹ *A Philosophy of Indian Economic Development* by Richard B. Gregg (Navajivan Publishing House, Ahmedabad, 1958)

본다면, 이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다. 석탄이나 원유 같은 재생될 수 없는 연료와 나무와 수력 같은 재생될 수 있는 연료의 본질적인 차이를 간단히 무시할 수는 없다. 재생될 수 없는 재화는 오로지 피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용되어야 하며, 그 경우에도 이를 보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과 관심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재화를 신중하지 않거나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일종의 폭력 행위이다. 이 지구상에 완전한 비폭력이 달성될 수 없다 하더라도, 인간에게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비폭력의 이상을 지향해야 할 절대적인 의무가 있다.

유럽의 미술품들이 모두 비싼 값으로 미국에 팔릴 경우, 유럽의 근대 경제학자들은 이를 경제적인 대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치로 불교 경제학자들은 재생될 수 없는 연료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을 소득이 아닌 자본에 기생하면서 살아가는 자라고 판단할 것이다. 이러한 생활방식은 영속성이 없으므로, 순전히 임시적인 방편으로서만 정당화될 수 있을 뿐이다. 석탄, 원유, 천연가스 따위의 재생될 수 없는 연료 자원은 전세계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그 총량에도 틀림없이 한계가 있으므로, 이것을 점점 더 많이 발굴하는 것은 자연에 대한 폭력 행위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인간들 사이의 폭력 사태로 이어질 것이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불교 국가에 살면서 자신들의 유산인 종교적·정신적 가치를 돌보지 않은 채 가급적 빠른 속도로 근대 경제학의 물질주의를 받아들이길 갈망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이들은 불교 경제학을 향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거부하기 전에, 근대 경제학이 제시하는 경제 발전 경로가 자신들이 진실로 원하는 상태로 이끌어 줄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의 브라운(Harrison Brown) 교수는 자신의 대담한 저작인

『인류의 미래를 위한 도전』(The Challenge of Man's Future)의 끝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산업사회는 근본적으로 불안정해서 농업사회로 되돌아가려는 움직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마찬가지로 사회 내부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던 조건도 경직된 조직화와 전체주의적 통제를 낳는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에서 불안정성을 보인다. 실제로 미래에 산업문명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난제들을 검토해보면, [사회] 안정성과 개인의 자유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¹⁰

이를 장기적 관점이라는 이유로 무시한다고 해도, 오늘날 종교적·정신적 가치를 무시한 채 진행되는 '근대화'가 실제로 납득할 만한 성과를 산출하고 있는가라는 현안이 남는다. 대중에 관한 한, 그 성과는 참담하다. 농촌경제가 무너지고, 소도시와 농촌에서 실업이 엄청나게 확대되었으며, 신체적·정신적 빈곤에 시달리는 도시 프롤레타리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바로 이와 같은 현재의 경험과 향후 전망에 비추어 정신적·종교적 가치보다 경제성장이 좀더 중요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차 불교 경제학 연구를 권유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 [불교 경제학]은 '근대의 성장'과 '전통의 정체' 사이에서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것은 물질주의자의 부주의 (heedlessness)와 전통주의자의 부동성 (immobility) 사이에서 올바른 발전 경로인 중도, 즉 '올바른 생활'을 발견하는 문제이다.

¹⁰ *The Challenge of Man's Future* by Harrison Brown (The Viking Press, New York, 1954)